

충청남도 시·군 명칭의 유래와 경역(14)

- 예산군 -

임선빈(충청남도시장군수협의회 전문위원)

충청남도에는 15개의 시·군이 있습니다. 이들 시·군의 경역(境域)은 대체로 일제강점기인 1914년에 인위적인 통합으로 그 윤곽이 정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공주시와 같이 조선시대의 공주목 경역에서 축소된 지역도 있고, 아산시나 부여군과 같이 조선시대까지는 3~4개의 고을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로 통합된 고을도 있습니다. 고을의 명칭과 경역도 백제·통일신라·고려·조선에서 각각 달랐던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의 시·군 명칭은 언제부터 등장했으며, 오늘날의 시·군 경역은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을까? 궁금합니다. 대부분의 지역 주민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시·군의 명칭 유래와 경역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 고을에 대해서는 관심을 지니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충청남도 시·군 공직자나 지역 주민들도 이웃 시·군을 이해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현재의 예산군(禮山郡) 경역은 1914년에 예산군·대흥군·덕산군과 공주의 일부를 합하여 성립된 것이다.

예산은 백제 때 오산현(烏山縣)이라 하였고, 경덕왕 16년(757)에 고산현(孤山縣)으로 개칭하여 임성군(任城郡)의 영현으로 삼았다. 이 고산현이 고려 태조 2년(919)에 예산현(禮山縣)으로 개칭된 것이다. 예산현은 현종 9년(1018)에 천안부의 임내에 속하였다가, 뒤에 감무(監務)를 두었으며, 조선 초기인 태종 13년(1413)에 감무 제도를 혁파하고 현감을 파견하기 시작하면서 종6품의 현감이 부임하는 고을이 되었다. 1895년의 23부제에서는 홍주부 예산군으로 개편되었다가, 1896년 13도제에서 충청남도 예산군(4등군)이 되었고, 1914년에 대흥군과 덕산군을 통합한 예산군이 출범하였다.

대흥은 백제 때 임존성(任存城) 혹은 금주(今州)로 불리었고, 통일신라 경덕왕 때 임성군(任城郡)으로 고쳤으며, 이 임성군이 고려 태조 23년(940)에 대흥군(大興郡)으로 개칭되었다. 고려시대의 대흥군은 현종 9년(1018)에 운주의 임내에 속하였고, 명종 2년(1172)에 처음으로 감무를 파견하기 시작했다. 조선시대의 대흥현에는 태종 13년(1413)에 감무 제도를 혁파하고 현감을 파견하기 시작하면서 종6품의 현

감이 부임하다가, 숙종 7년(1681)에 현종의 태실이 있어서 종4품의 군수가 부임하는 대흥군으로 승격되었다. 조선시대의 8도제하에서 충청도에 속한 대흥군은 1895년에 23부제가 실시되면서 홍주부 대흥군으로 개편되었다가, 1896년에 13도제가 실시되자 충청남도 대흥군(4등군)이 되었으며, 1914년의 고을 통폐합에 의해 고을이 폐지되고 덕산군과 함께 예산군에 통합되었다.

덕산은 조선 태종 때 이산과 덕풍을 합치면서 덕산이라고 불리기 시작한 고을이다. 이산(伊山)은 백제 때 마시산군(馬尸山郡)이라고 하였으며, 신라 경덕왕 때 이산군(伊山郡)으로 고쳤고, 고려 현종 9년(1018)부터 홍주의 임내에 속하였다가, 뒤에 감무를 두었다. 덕풍현(德豐縣)은 백제 때 금물현(今勿縣)이었고, 신라 경덕왕 때 금무(今武)로 개칭하여 이산군의 영현으로 삼았다가, 고려 초에 덕풍(德豐)으로 고치고 현종 때 운주의 임내에 속하였다가, 명종 5년에 처음으로 감무를 두었다. 그런데 조선 태종 5년(1405)에 이산(伊山)이 내상(內廂)의 성밑[城底]에 있기 때문에, 인물(人物)이 조잔(凋殘)하다 하여, 덕풍현과 이산현을 합쳐 덕산(德山)이라고 감무를 두다가, 태종 13년에 감무 제도가 혁파되면서 종6품의 현감(縣監)이 부임하는 고을이 되었다. 덕산현에는 순조 27년(1827)에 현종이 태어났을 때 옥계리 명월봉에 태를 묻었는데, 현종이 왕위에 오른 후 현종 13년(1837)에 군으로 승격되어 덕산군(德山郡)이 되었다. 1895년에 23부제가 실시되자 홍주부 덕산군으로 개편되었다가, 1896년에 충청남도 덕산군(3등군)이 되었고, 1914년에 예산군에 통합되었다.